새 정부 눈치봤나…이마트 치평동 '노브랜드' 철회

서구청에 이례적 사업계획 자진 취하 … 배경 놓고 해석 분분 일부선 "광천동 특급호텔 건립 위한 일시적 중단" 관측도

이달 31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준대규모점포 (SSM)를 열고 영업에 들어가겠다〈광주일보 5월1 일자 6면〉고 밝힌 (주)이마트가 돌연 사업계획을 취하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중소마트 운영자, 시장 상인 등 자영업자, 서구 청, 서구의회 등 지역사회는 이마트 측의 사업철회 결정을 반기면서도 마냥 곱지만은 않은 시선을 보 내고 있다. 대형마트인 이마트와 달리, 일반 마트보 다는 크고 대형마트 보다 작은 준대규모점포인 이 마트 노브랜드(마트명칭)의 경우 법적 규제가 상대 적으로 느슨한 탓에 이마트 측이 여건 변화에 따라 언제든 점포 개설을 재추진해 시장공략에 나설 가 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주)이마트는 지난 19

일 서구에 '준대규모점포 개설계획을 취하하겠다' 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보내왔다. 사업취하 사유는 '임대차 계약 해지'라고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 측은 앞서 지난달 24일 "5월 31일 광주시 서구 상무중앙로28번길 9(치평동)에 매장면적 578. 31㎡ 규모의 '노브랜드 광주치평점'을 열고 영업에 들어가겠다'고 서구에 신고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광주 중소상인살리기 네 트워크(집행위원장 김용재)를 중심으로 한 상인들 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내며 반발했고, 서구의회도 이마트 측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상인들은 이어

지난 2일 "이마트 노브랜드 광주 1호점은 촛불정 신, 상생정신에 위반하는 유통 대기업의 꼼수다. 치 평동 1호점이 뚫리면 광주 상권이 붕괴하는 것은 시 간문제"라며 광천동 이마트 앞에서 반대 시위를 열 기도 했다.

〈SSM·준대규모점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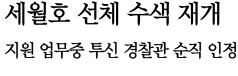
중소상인들의 대대적인 반발에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던 이마트 측이 지난 18일 서구에 유선으 로 절차문의를 하고 이튿날 공문을 통해 돌연 사업 철회 결정을 하면서 그 배경을 둘러싸고 다양한 뒷 말이 나오고 있다.

촛불혁명을 기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 초반부 터 이마트 측이 광주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할 경 우 자칫 그룹차원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 상인 들 반발 등을 의식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소탐대 실'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 중단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신세계가 서구 광천동 일대에 연면적 21만 여㎡(6만여평) 규모로 세우려고 하는 특급호텔·쇼 핑몰 복합시설 건립 관련 인허가 절차 완료 전 무리 하게 준대규모점포 개설을 강행할 필요가 없을 것 이라는 해석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마트 측이 돌연 사업취하 신청 서를 접수했다.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

이대행 서구의회 의원은 "이마트가 점포 개설을 준비했던 노브랜드의 경우 대형마트가 아닌데다 매 장위치도 전통시장보전구역 밖이어서 관련법에 따 라 신고만 하면 언제든 영업이 가능한 형태였다"며 "유통대기업에 맞서 지역상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세월호 선체 수색 작업자들의 휴식을 위해 지난 이틀간 중단됐던 선체 수색이 재개됐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작업자들의 피로도 등을 감안해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중단한 세월호 선체 수색이 29일 오전 8 시부터 재개됐다.

현장수습본부는 객실이 있는 3층과 단원고 학생들이 머물렀던 4층에 대한 지장물 제거 작 업과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세월호 선체 3~5층의 총 44개의 수색구역 중 28개 구 역은 1차 수색을 마치고 정리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4층의 경우 화장실 등 2개 구역만 남기 고 수색이 마무리됐다. 3층의 수색은 절반 가까 이 진행됐고 3-18구역 5층은 현재까지 4개 구 역의 수색을 실시했다. 세월호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으로 알려진 3층 로비(3-5구역)에는 세 월호 침몰 당시 3층 승객뿐만 아니라 다른 층의 승객들도 머물렀을 가능성이 커 집중수색이 필 요한 장소 중 한곳이다. 진흙 분리 작업이 계속 진행된 가운데 3층(3-18구역)에서 수거한 진흙 을 분리하는 작업과정 중에 사람 뼈로 추정되 는 작은 크기의 뼛조각 1점 이 발견됐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현재 다음달 말까지 객실수색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세월호 선체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한편, 전남지방경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2달간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진도대교에서 투신한 김모 경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부터 '공무상 사망' 인정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 다. 김모 경감은 3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받았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29일 광주시 남구 진월동 국제테니스장 내에 문을 연 로컬푸드(local food) 직매장에서 시민들이 친환경 농·축산물·가공품 등을 고르고 있다.

광주 남구 로컬푸드직매장 개장 진월국제테니스장 옥외 부지에

광주시 남구가 공들여 준비한 로컬푸드(local food) 직매장이 29일 문을 열고 영업에 들어갔다.

직매장이 자리잡은 곳은 진월국제테니스장 옥외 주차장 부지다. 남구는 이 곳에 연면적 989.4m², 지 상 2층 규모로 매장을 꾸몄다.

1층은 로컬푸드·사회적 경제 생산품·지역 특산 물·신선 및 가공식품 판매장, 학교급식 저온 저장

시설, 소포장실 등으로 채웠다. 2층에는 지역경제 순환센터 사무실, 대회의실, 세미나실, 옥외 정원 등이 들어섰다.

로컬푸드라는 명칭에 걸맞게 매장과 근접한 남구 대촌동, 나주·화순지역 농가 300여 곳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축산물·가공품 445종이 연중 소비자와

남구 관계자는 "다음달 20일까지 시범 운영을 하 면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 겠다"고 말했다. 문의 남구 지역경제순환과 607-2721, 광주 남구 로컬푸드 직매장 603-6688.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제2순환도로 '지산IC 진출로' 내년 개설

무등산 가는 길 크게 개선

국립공원 무등산을 오가는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내 동구 지산동 통과 구간 에 '지산IC 진출로'를 오는 2018년 말까지 개설한다 고 29일 밝혔다. 이 지산 나들목은 소태 요금소에서 두암IC 방향으로 2.5km 떨어진 곳에 설치하며 기 존 두암IC 직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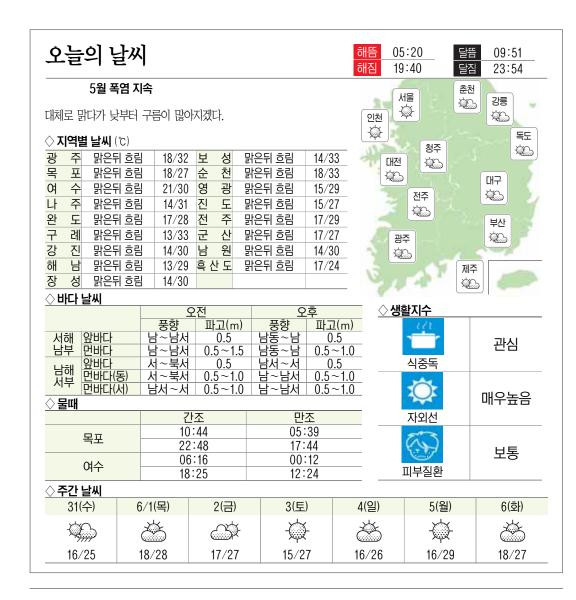
광주의 핵심 교통망인 제2순환도로에서 무등산 방면 진입을 위해서는 기존 두암IC를 이용했으나 나들목을 빠져나온 뒤 도심으로 1.5km를 우회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지산IC가 개설되면 곧바로 광주법원 진입로를 통 해 무등산 방면으로 연결돼 도심으로 우회하는 불편 을 해소할 수 있다. 광주시는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를 마친데 이어 다음 달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사비 52억원은 민자도로 관 리업체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며 "시는 토지보상 비 18억원만 부담하는 등 재정부담도 덜었다"고 말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주관 아시아문화